

## 한국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현황에 대한 연구

### An Investigation of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CPGs) development

정미애, 안소연\*

강원대학교, 원광대학교\*

Jeong Mi-ae, An So-youn\*

Kangwon National Univ., Wonkwang Univ.\*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된 진료분야의 현황, 임상진료지침의 개발자 혹은 기관의 현황, 임상진료지침 정보의 공개와 보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 I. 서론

### 1) 임상진료지침

미국치과의사협회는 근거중심치의학을, ‘환자의 구강 및 전신상태와 병력과 관련된, 과학적 근거의 체계적 조사를, 치과외사의 임상기술, 환자의 치료수요와 선호와 함께 현명하게 통합하는 것을 요구하는 구강건강진료의 접근법’으로 정의한다(1). 임상진료지침은 “특정한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진술”로 정의할 수 있다. 임상진료지침은 진료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의사의 진료와 과학적 근거의 간격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도구로서 간주되고 있으며, 지난 20여년동안 전세계적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임상진료지침의 활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임상진료지침의 기본적인 목적은 진료와 관련하여 의사와 환자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임상진료지침은 과학적 근거에 대하여 어떤 증거가 편익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이를 지지하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의사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알려준다. 동시에 위험한 치료에 대한 주의를 하게 하며 가능한 결과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의사들에게 권고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임상진료지침은 환자에게도 도움을 주는데 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좋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진료의 순응도를 높이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2). 임상진료지침이 대두되는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새로운 의학기술의 신속한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기술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술률, 입원율, 약제사용률 등 진료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이를 설명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고 보건의료비 지출에 있어 의사의 판단이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의료

제공자의 행태를 적절히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 2) 임상진료지침의 검색

\* 체계적인 문헌고찰 지침 \*을 참고하여 2015년 6월 체계적인 문헌 고찰 경험이 있는 1인에게 의뢰하여 국외의 전자 데이터베이스 검색 자료원(MEDLINE, EMBASE)을 이용하였다. 가이드라인은 MEDLINE, MEDLINE systematic Review, MEDLINE clinical study, Ovid MEDLINE, EMBASE, Web of science 및 Cochrane Library의 전자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였고, 국내 검색 엔진으로는 koreaMed,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이용하였으며, 이외 google scholar, scopus 및 진료지침 검색 자료원인 미국의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 국제진료지침협의체인 Guidelines International Network(GIN)의 International Guideline Library, 캐나다의 Canadian Medical Association(CMA) Infobase를 검색하였다.

개발된 진료지침이 임상현장과 연계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 진료지침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국내 치과외사들의 가이드라인 활용에 대한 조사로는 2014년 양 등에 의해 진정법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소아치과외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최근 조사가 있었다. 그 결과 ‘치과진정법 가이드라인’에 대해 78%가 인식하고 있으나 활용정도에 대해서는 꽤 참조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17% 밖에 되지 않아 가이드라인의 활용정도는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하였으며, 따라서, 진정법을 사용하고 있는 소아치과외사들이 임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진정법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하며,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진정법이 이루어지도록 소아치과학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3). 해외의 조사로는 독일의 파킨슨병 진료지침에 대한 신경과 전문의 대상의 설문조사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전문의들은 진료지침을 현장에 도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시간의 부족(34.3%), 환자 선호도와 의 충돌(34.3%), 진료지침을 알지 못함(32.5%)을 꼽았다(4). 진료지침을 활용하여야 하는 의료인이 진료지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다는 국내외의 조사 결과는 진료지침이 임상현장에서의 활용하기에 용이하도록 보급 전략의 개발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진국에서는 진료지침의 개발, 확산 및 실행과 관련된 국가적 정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진료지침에 관한 경험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1990년대 이후부터 진료지침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진료지침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지침의 인지 및 보급에 대한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있으며, 개발 못지않게 활용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5). 우리나라의 임상진료지침 개발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로 대부분의 진료지침은 전문학회 혹은 전문단체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대개 하나의 학회나 단체가 개발하였다. 앞으로는 여러 학회 및 단체의 참여 확대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침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하며, 유병률이 높은 질환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질환에도 지침의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의 경우, 여러 실행 전략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자료제공, 회의, 여론지도자의 방문, 안내문 등이며, 이 밖에도 심사 및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진료지침 프로그램에서 진료지침의 질을 관리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진료지침을 보급하는 보급기구(guideline clearing house)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앞으로 개발될 임상지침의 경우 최신의 정보를 담기 위하여 지침의 업데이트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침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인력, 비용 등의 자원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진료지침이 해당 학회의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도록 하여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개발된 진료지침이 임상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II. 그림과 표

조사 대상의 선택과 배제 요인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Eligibility and Ineligibility criteria for the study

Eligibility criteria	Ineligibility criteria
근거중심의 진료지침일 것	권고 및 권고를 지지하는 근거가 확실히 표기 되지 않은 진료지침
국어 혹은 영어로 쓰여진 진료지침일 것	입원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진료지침
개정판이 있는 경우에는 최신판을 기준으로 할 것	개정판의 발행으로 구판이 된 진료지침
외부검토가 이루어진 전문가 consensus 진료지침을 포함할 것	이미 수용개발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진료지침

## ■ 참고 문헌 ■

- [1] ADA Policy on Evidence-Based Dentistry, American Dental Association, 2006.
- [2] Institute of Medici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we can trust.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11.
- [3] Yang YM, Shin T J, Yoo SH, Survey of Sedation Practices by Pediatric Dentists, J Korean Acad Pediatr Dent2014; 41(3) 257-265
- [4] Larisch A, Oertel WH, Eggert K. Attitudes and barriers to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general and to the guideline on Parkinson's disease. A National Survey of German neurologists in private practice. J Neurol 2009;256(10):1681-8.
- [5] Kryworuchko J, Stacey D, Bai N, et al. Twelve years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 development, dissemination and evaluation in Canada (1994 to 2005). Implement Sci 2009;4:49.

제1저자 : 정미애(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이메일 : teeth2080@kangwon.ac.kr  
교신저자 : 안소연(원광대학교 소아치과 교수)